

元 간섭기 이후 고려의 정치세력

이 형우(Lee HyoungWoo)

1. 머리말

공민왕 5년(1356) 고려는 '反元改革'을 단행하여 오랜 元의 간섭을 극복하였다. 이 역사적 대사건은 공민왕의 정확한 중국정세에 대한 판단과 적절한 인물의 기용, 나아가 과감한 결단력에 바탕한 것이었다. 이후 고려는 공민왕의 주도 아래 독자적으로 국가 운영을 해 나갔다.

공민왕은 2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뒤, 재위 원년과 5년, 14년, 20년 크게 4차례에 걸쳐 개혁정치를 시도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정국 운영을 주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왕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여러 성격이 다른 인물들을 등용하거나 퇴출시켰다. 공민왕대의 복잡한 정국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정계에 등장할 수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집단화하여 고려말기의 주요 정치세력으로 활동하였으며, 그들 중 李成桂勢力과 易姓革命派 新進士類의 연합에 의하여 고려가 멸망당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원 간섭 극복 이후 공민왕대에 형성된 각각의 정치세력들에 대하여 그것들의 형성과 그 배경, 그리고 활동 등을 살펴 보고, 가능하다면 그 정치세력들과 고려의 멸망, 조선의 건국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려고 한다.

2. 원 간섭기의 王權

고려는 고종 18년(1231) 몽고에게서 첫 번째 침략을 당한 이래, 약 29년 동안 몽고와 항쟁을 하다가 고종 46년 강화를 맺었다. 이후 원종이 즉위하자 고려와 몽고는 이전과는 다른 우호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는데, 원종 11년 마지막 무인집정자인 林惟茂가 제거되고, 14년에는 三別抄의 항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드디어 15년 원종의 태자 謙이 원 世祖의 딸 忽都魯揭里迷失公主와 혼인을 하게 되면서 고려는 원의 부마국으로서 원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였다.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된 것은 원종의 직접적인 요청 때문이었다. 원종은 林衍에 의하여 재위 10년에 폐위당하였다가, 원이 압력을 넣어 왕위에 복위되자, 곧 원으로 들어가 태자와 몽고 공주와의 혼인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원종이 먼저 혼인을 요청하였던 것은 자신이 폐위되었던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이지만, 원종은 이미 태자 시절부터 왕권이 무인집정자들에게 무시당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남달랐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는 아버지인 고종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원과의 교섭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몽고는 고려에 침입을 시작한 이래 집요하게 고려 국왕의 親朝를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고려에서는 崔瑀 이래로 무인집정자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종도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몽고는 고종 44년(1257) 침입한 뒤, 이어진 교섭 과정에서 車羅大가 국왕의 親朝 대신 태자가 入朝하여도 좋다고 한 말 양보하였다. 그 뒤 宰樞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태자의 입조를 승낙하지 않았는데, 결국 태자 즉, 뒤의 원종은 고종 46년 4월 몽고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뒤에 원 世祖가 되는 忽必烈[쿠빌라이]을 梁楚의 땅에서 만났다. 이때 忽必烈은 "고려는 萬里의 나라이다. 唐太宗도 몸소 쳐 능히 항복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의 세자가 스스로 와 우리에게 歸服하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로다"라고 하면서 몹시 기뻐하였다고 한다. 이후 고려에서 고종의 죽음을 알려와, 忽必烈은 태자에게 귀국하여 왕위를 잇게 하였고, 태자는 돌아와 3월에 즉위하였다. 이렇게 아버지인 고종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자가 결국 원으로 입조하려 간 것은 그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원종은 고종 6년(1219)에 출생하여 崔瑀·崔沆·崔濬 집권기를 겪었고, 고종 45년 그의 나이 40에 柳璈·金俊 등이 주도한 정변에도 불구하고 왕정이 복고되지 못하고 다시 김준이 정권을 장악하는 현실을 보면서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보다 강력한 존재인 원의 협조를 도모하였다고 보인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생사마저 불확실해질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태자의 몸으로 원으로 입조를 떠났던 것이다. 유명무실한 왕이 되기 보다는 모험을 택한 것이다.

원종의 그런 모험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이 폐위당하였다가 원의 압력에 의하여 복위된 것에서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어쨌든 신하에게 강제로 폐위당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더욱 강력한 원의 후원을 기대하며 왕실간의 혼인을 요청하였고, 그것을 결국에는 성사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왕권의 안정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은 한 면의 경우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 왕실은 거의 모든 국내의 문제에서 원의 간섭을 심하게 받게 되었다. 특히 왕위 계승은 철저하게 원의 간섭을 받았다.

원 간섭기에 있어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은 고려 국왕들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데에 좋은 근거자료가 된다. 먼저 원 황실의 첫 번째 사위가 된 忠烈王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자에게 왕위를 양도하여야 하였고, 뒤를 이어 왕이 된 忠宣王도 역시 그의 뜻과는 달리 즉위한 지 불과 7개월여만에 다시 왕위를 충렬왕에게 넘겨야 하였다. 두 번째로 忠肅王은 재위 17년에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어야 하였고, 역시 왕위를 이어받은 忠惠王도 왕위에 오른 지 2년여만에 원에서 온 사신이 "上王의 복위를 명하였다"는 말을 전하자, 國璽를 빼앗기고 원으로 불려 들어갔다. 나아가 충혜왕은 복위 4년 11월에는 원에서 보내온 사신 등에게 구타당한 뒤 포박당하여 원으로 끌려갔고, 유배 도중 객사하였다. 뒤를 이은 忠穆王과 忠定王은 모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들의 즉위 역시

전적으로 원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반원개혁'을 주도한 공민왕 역시도 그의 즉위는 원이 결정한 것이었다.

물론 원의 부마국이 되면서 간섭을 자청한 이상 고려 왕실은 원이 고려 왕위 계승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신하들이 지나치게 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원에 의탁한 附元勢力들은 때로 왕권을 능멸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들 부원세력들은 왕위 계승을 그들의 이익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갖은 불법을 자행하였고, 심지어는 고려를 원의 다른 行省과 같이 만들려는 '立省論'까지 주장하였었다. 이것은 왕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이런 부원세력들의 권력 남용이 극에 달하여 왕권이 무시된 것은 공민왕대에 들어와 더욱 심하여졌다.

공민왕은 충목왕이 죽었을 때 李齊賢 등에 의하여 추천되어 왕위 계승자 경쟁에 나아간 적이 있지만, 당시는 충정왕이 즉위함으로써 좌절을 겪었다. 그러나 충정왕을 옹립하고 정국을 주도한 자들의 실정으로 충정왕이 쫓겨나고, 1351년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공민왕의 즉위에는 원 順帝의 2 황후인 奇皇后의 힘도 작용하였던 것 같고, 그런 영향으로 그 이전부터 권세를 부리던 기씨 일족들은 더욱 권력을 행사하였고, 그것은 공민왕 2년(1353) 7월 기황후의 아들인 愛猷識理達臘가 황태자로 책봉되면서 극에 달하였다. 일찍이 기황후의 형제인 奇轄은 공민왕과 말을 나란히 하려다가 체지당한 바가 있고, 그의 형인 奇轍은 공민왕에게 신하를 칭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나아가 원에서 榮安王으로 追封되었던 기철의 아버지를 敬王으로 고쳐 책봉하고, 또 3代를 추봉하여 왕으로 삼자 기씨 일족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이들 기씨 일족 이외에 權謙과 盧瓣도 모두 딸을 원에 바쳐 당시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은 국민의 기대를 받으면서 22세의 나이에 어렵게 왕위에 오른 공민왕이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3. 恭愍王의 정치 운영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

공민왕대는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세력을 형성해 나갔다. 공민왕대에 그렇게 많은 신진 인사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당시가 기회의 시대이자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민왕의 정치운영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공민왕이 필요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성장을 유도하고 이끌어 냈던 것이다. 공민왕은 충분히 준비된 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위기간 동안 원년과 5년(1356), 14년, 20년 크게 4번에 걸친 개혁을 시도할 수가 있었고, 그때마다 다른 개혁지원세력을 만들어 내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였다.

공민왕은 원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는 12세 때인 충혜왕 후 2년(1341)부터 원에 들어가 숙위하였다. 3년 뒤 충혜왕이 죽은 뒤 충목왕이 왕위에 올랐고, 그때부터 4년 뒤에는 王煦·李齊賢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정왕에게 왕위가 돌아갔다. 이런 사건들의 전개에서 공민왕은 그 배후세력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결코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가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공민왕이 원에 있던 때는 바야흐로 원이 서서히 쇠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던 시기였다. 각지에서 漢人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 조정에서 그것을 철저히 진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공민왕은 이러한 당시 국내외 정세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민왕은 원년 2월에 政房을 혁파하고 文武의 인사를 각각 典理司와 軍簿司로 귀속시킨 다음, 이어서 즉위교서의 반포를 통하여 개혁을 표방하였다. 그 중 주목할만한 것은 親政에 대한 의지 표명, 倭寇에의 대비책 강구, 田民 탈점 문제 해결을 위한 田民辨正都監의 설치 등이다. 즉, 정치면에서는 왕의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제면에선 불법적 전민 탈점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재위 원년의 개혁정치를 시도하면서 공민왕은 세 부류의 지원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첫째는 이제현으로 대표되는 공민왕 추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유학자 집단이고, 둘째는 공민왕이 燕京에서 숙위할 때 호종하던 인물들 즉, 柳淑·金得培·趙日新 등의 燕邸隨從功臣이며, 셋째는 洪彦博(明德太后的 조카)으로 대표되는 외척세력이다. 이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혁을 진행해 나가던 중 그것을 후퇴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조일신의 난'이다. 그 사건의 주 참여자들은 충혜왕의 嬖幸들이었던 인물들인데, 그들은 奇氏 일족들과 그 측근들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은 奇輪만 죽고, 다른 기씨들은 모두 도피해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 몇 가지는 첫째, 조일신이 너무 쉽게 잡혀 죽은 점, 둘째 조일신 스스로 사건 참여자들을 죽인 점, 마지막으로 조일신이 왕을 위협하여 단행한 인사이동의 내용에서, 뒤에 공민왕이 '반원개혁'을 단행할 때와 너무도 비슷하게, 원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예상한 적극적인 조치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일찍부터 부원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던 공민왕이 조일신을 시켰던지, 아니면 은근하게 암시하였던 바를 조일신이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조일신이 제대로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자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공민왕 자신은 책임을 면하고 후일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은 실패로 끝나, 개혁은 후퇴하고 기씨 일족 등 부원세력은 더욱 득세하게 된다.

공민왕이 다시 한 번 개혁을 생각하게 된 것에는 원의 정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년에 원의 요청으로 한인 반란군 토벌을 위하여 파견되었던 柳濯·崔瑩 등이 4년 5월에 돌아왔는데, 이들을 통하여 왕은 더욱 자세한 원의 상황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런 위에 기철 등의 교만함이 도를 넘어서자, 드디어 5년에 奇轍·權謙·盧瓣 등 부원세력들의 숙청, 雙城摠管府 등 옛 영토의

수복, 征東行省理問所 혁파 등을 골자로 하는 '反元改革'을 단행하였다. 이때의 개혁지원세력도 원년의 개혁을 뒷받침하던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공민왕 5년의 '반원개혁' 이후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武將들의 현저한 정계 진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을 살펴 보면, 첫째 군사적 행동을 실천한 것이 무장들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원의 침략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공민왕으로서는 유능한 무장들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셋째는 왕 8년 12월과 10년 10월, 2차례 있었던 紅巾賊의 침입이다. 2차 침입 때는 왕 자신이 福州[안동]까지 피난갔을 정도로 고려에 큰 피해를 주었던 사건인데, 이때 최영과 이성계 등의 활약으로 개경을 수복하고 홍건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자연히 무장들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넓어졌다. 넷째는 홍건적을 물리치고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였던 '興王寺의 亂'이다. 이때도 최영·楊伯淵 등의 활약으로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넷째는 왕 11년의 納哈出의 침입과 13년의 德興君 침입 사건이다. 특히 덕흥군 침략 초기에는 고려에서 고전하여, 재상 중에는 왕에게 남쪽으로 피난을 가라고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최영이 都指揮使로 임명되어 간 뒤, 전세를 역전시켜서 덕흥군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것은 공민왕의 왕위와 직결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격퇴한 무장들에게 공민왕은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었다. 즉, 慶千興·최영 등이 개선하자 왕이 有司에게 명하여 御駕를 맞이하는 의식과 같이 하였고, 百官들이 교외에 나가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다.

당시 공민왕이 무장들을 포상한 과정과 그 정도는 공민왕 12년 윤 3월과 12월에 있었던 공신 책봉을 살펴 보면 잘 알 수 있다. 먼저 윤 3월의 책봉은 '흥왕사의 난'을 평정한 직후에 단행된 것인데, 興王討賊功臣, 扶侍避難功臣, 辛丑扈從功臣, 建議集兵定難功臣, 僉兵輔佐功臣, 收復京城功臣 등 모두 6종류의 공에 대한 것으로 각각의 1등급공신들에게는 토지 100結과 노비 10口를, 2등급공신들에게는 토지 50결과 노비 5구를 지급한 대규모의 공신 책봉이었다. 그리고 8일 뒤 관직 인사가 있었는데, 최영·禹燾·韓暉·吳仁澤·楊伯淵·金漢眞 등 6명에게는 관직 임명과 함께 별도의 공신호를 더 내려주었다. 12월의 공신 책봉은 덕흥군의 침입이 알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己亥擊走功臣, 僉兵濟師功臣 등 2종류에 대한 것이다. 이 두 번의 공신책봉에서 수혜를 받은 인물의 합계는 351명이고, 중복된 인물들을 제하더라도, 280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것이었다.

이러한 덕흥군 침입까지의 국내외 정세 변화와 그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무장들을 위주로 한 포상 등의 결과 무장들의 권력은 비대하여져서 최영과 오인택은 侍中인 柳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면서 政房에서 인사권을 놓고 다투었으며, 최영은 왕명을 무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무장들이 정치적으로 급성장하였지만, 그들이 정치세력화할 시간적 여유는 갖지 못하였던 것 같다. 또한, 경쟁이 되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공민왕은 원의 간섭을 물리치려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것을 뒷받침해줄 자원이 필요하였고, 그런 목적에서 신분을 막론하고 군사적 재능이 있는 경우에는 등용하였다. 그런 위에 공민왕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흥건적의 침입과 '흥왕사의 난'과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무장들의 주가는 더욱 올라가서, 무장들은 자신들을 등용해 준 주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행동까지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들과 경쟁을 할만한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은 특수한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정치세력'화하려는 생각은 갖지 못하였다.

무장들이 정치세력화하기 시작한 것은 공민왕이 재위 14년에 辛旽을 등용하여 새롭게 개혁정치를 단행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공민왕은 덕흥군의 군대를 물리치고, 원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등 국외 정세가 안정되자 과감하게 새로운 방향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개혁 내용 중에서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成均館의 重營이다. 개혁의 일선에 나선 인물은 승려 출신인 신돈임에도 불구하고 성균관을 중영하면서, 그 학관들로 金九容·鄭夢周·李崇仁·鄭道傳 등 과거급제자 출신의 인물들을 기용한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은 개혁을 지원하는 역할과 개혁의 이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나의 '정치세력'화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개혁은 循資格制의 실시 등 무장들의 정치적 이익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무장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신돈이 등용되면서 바로 쫓겨났던 최영·경천홍은 물론이고 신돈으로 인하여 더욱 출세한 金元命·오인택 등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무장들이 참여하여 신돈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비록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 이후 이들은 신돈이 집권하고 있을 동안에는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였지만, 이때부터는 무장들도 비로소 하나의 '정치세력'화하였다고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록 무장들이 軍功 등을 통하여 고위 관직을 차지한 것은 빨랐지만, 공민왕의 적절한 통제에 의하여 신진사류와 무장세력이 정치세력화한 시기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세력화와 서로의 대립은 그들 각각의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공민왕의 정치운영이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시대적 필요에 따라 공민왕이 두 세력의 성장을 용인하였으며, 그것은 이후 정국이 변화하여, 공민왕이 그들 두 세력을 모두 필요로 하게 되자 그들은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변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민왕은 재위 20년 7월 역모를 꾀하였다는 이유로 신돈을 죽였다. 신돈은 스스로 5道事審官이 되려고 하는 등 집권 말기에 권력에 집착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역모를 꾸민 것은 아니었다. 결국 역모는 형식상의 이유일 뿐이었고, 실질적인 이유는 공민왕이 국외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국을 전환한 때문이었다. 즉 공민왕은 덕흥군 침입 사건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원과 사대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張士誠·方國珍·朱元璋 등 漢人 群雄들과도 교류를 해 왔고, 그 뒤에는 吳王·淮王 등 원의 지방세력들과도 계속 관계를 가져

왔다. 그런데 주원장의 명이 장사성·방국진 등을 제압하고 위세를 떨쳐 원을 북쪽으로 쫓아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공민왕은 새로운 강자로 자리잡은 명과의 관계정립을 추진하여 국교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공민왕이 명에 대하여 저자세로 과거의 원과 같은 외교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며, 어디까지나 철저한 실리외교를 취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왕위 보전, 그리고 독립국가로서의 고려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공민왕은 18년 7월에 三司左使 姜師贊을 京師에 보내 冊封과 璽書에 감사하면서도 아울러 耽羅의 일을 고려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나아가 18년 12월과 1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東寧府 정벌을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외관계의 변화는 신돈 집권기와는 달리 군사적[전쟁 수행] 능력을 가진 인물들을 필요로 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공민왕은 신돈 집권기 동안 배제시켰던 최영과 경천흥 등 무장들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무장들을 축출할 때 전면내세웠던 신돈을 제거하고, 다시 무장들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신진사류들은 공민왕이 주도하는 대명 외교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정계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그런 까닭에 이때는 무장세력과 신진사류가 서로 공존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던 역할의 비중상 무장세력이 주도권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런 사실은 무장세력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都堂의 정치적 역할을 공민왕이 강화시켜준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신돈을 제거한 20년 전후부터 공민왕은 다시 親政을 하였다. 그것은 당시 정치상황이 대리인을 내세울 정도로 여유가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명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정립해 나가던 시기도 무장세력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무장들 중 누구도 그전과 같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였고, 그 점에 있어서 최영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최영은 공민왕에게 신임을 잃을까 전전긍긍하였다. 그래서 당시 寵臣으로 子弟衛를 총관하고 있던 金興慶의 뜻을 맞추기 위하여 李成林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으며, 憲司에 의하여 慶尙·全羅·楊廣道都巡問使가 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는 눈물로 자신의 충성심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공민왕이 이렇게 직접 정국을 주도하여 나갔지만, 명과의 관계는 순조롭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명은 요동지역을 수중에 넣은 뒤로는 고려에 대하여 고압적인 자세로 바뀌어서 내정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나아가 공물도 많이 요구하였다. 23년에는 사신을 보내 濟州馬 2천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탐라의 牧胡들이 반항하여, 공민왕은 최영을 주장으로 하여 전함 314 척, 병사 2만 5천여 명을 파견하여 탐라 정벌을 명령하였다. 이렇게 명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시기에 정국을 주도하던 공민왕이 갑자기 시해당하였고, 그 결과 고려는 한층 어려운 길로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다.

4. 禡王代의 정치세력과 정국 운영

공민왕의 죽음에 대하여 명의 강압적인 태도와 공민왕의 저자세적인 외교정책에 불만을 품은 親元派들의 소행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정세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정치가들이 당시 중국 대륙의 주인으로 명이 자리잡은 사실을 부정하고, 親元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또한 명의 태도 보다 원의 태도가 훨씬 강압적이었다는 것은 원 간섭기를 겪은 고려의 정치가들이라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결국 공민왕 시해는 우발적인 것에 가까웠다. 그런 까닭에 후사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었고, 그 결과 明德太后와 慶復興 등 뜻있는 이들이 종실 중의 덕이 있는 인물을 추대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李仁任의 주도로 공민왕의 어린 아들 禔가 1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왕이 죽었을 때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정치세력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진사류는 어떤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다는 것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우왕의 아들 昌王이 재위 중일 때 '廢假立眞'을 주장하며,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후손이라고 몰아서 죽인 것을 생각한다면 의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무장세력도 우왕 즉위 당시에는 어떤 정치적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영을 비롯하여 邊安烈·睦仁吉·林堅味·池癩·羅世 등 상당수의 무장들은 탐라 정벌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약 한 달여 뒤에 개경으로 돌아왔지만 우왕의 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우왕의 즉위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정예부대 2만 5천여 명을 거느린 개신 장군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왕의 즉위를 찬성하였던 것이다. 즉, 그 선택에 대하여 만족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신진사류나 무장세력 모두 우왕의 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당시 국내외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보다 경륜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인물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 있는 공민왕의 국왕 중심의 정치운영체제를 겪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불리하였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였기 때문에 정국운영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없을 것 같은 우왕을 즉위시켰다. 따라서 우왕대의 정치운영은 우왕 옹립을 주도한 이인임세력과 그것을 방조한 신진사류, 그리고 묵인한 무장세력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우왕 원년 2월에 반포된 교서를 살펴 보면, 都堂을 정치·경제 등 모든 국정을 주관하는 기구로 완전히 자리매김시키고 있다. 당시 신진사류 중 도당에 참여할 수 있는 인물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때 신진사류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즉 이인임세력과 무장세력이 도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만큼 교서의 작성은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함께 숙의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연합하여 정치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생각된다. 일종의 연립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연립정권의 특성은 첫째, 이인임세력과 무장세력의 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왕의 왕권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당이라는 최고 관부를 매개로 하여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삼았다. 이것은 공민왕의 국왕 중심의 정치운영에 반대한 이인임·최영 등이 강력한 왕권의 대두를 제어하면서 고위관료들의 이익이 골고루 반영되는 정치운영 방법을 찾은 결과인 것이다.

군사적·인적기반이 풍부한 연립정권은 순조롭게 우왕대의 조정을 장악하고 정국을 운영해 나갈 것 같았다. 그러나 교서 발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정치운영에서 밀려난 신진사류가 외교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명의 사신이 살해당한 문제의 처리를 놓고 고민하던 연립정권에서 北元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지향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신진사류가 단계적으로 반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립정권에서는, 그들도 본래 親元政策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습 차원에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지만, 정권의 핵심인물인 이인임과 지윤을 죽일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신진사류의 공세를 참지 못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유배보냈다. 그 결과 신진사류는 우왕 재위 기간 내내 공민왕대와 같은 개혁성을 가지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정몽주·權近·李崇仁 정도가 명과의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신진사류의 도전을 물리치고 나서 한 동안은 뜻대로 정국을 운영하던 연립정권에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재위 3년(1377) 3월에 무장 중 일인인 池籛이 우왕과 밀착하면서 권력을 확대해 나간 것이다. 연립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지윤일파의 권력확대의 문제로만 파악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왕의 왕권 확보에 대한 의지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철저하게 뿌리를 제거한다는 마음으로 지윤일파를 제거하였다. 그때 최영은 지윤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전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뜻하는 바를 이루었다. 물론 신하가 국왕의 허락 없이 칼을 소지하고 어전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최영은 그만큼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연립정권에 대한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년 5월에 또다시 무장인 楊伯淵이 우왕과 연결하여 권력을 확대해 나간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때는 과거급제자 출신으로 우왕의 사부를 지냈던 洪仲宣과 역시 과거급제자 출신으로 명의 制科에까지 합격한 金壽까지 연루되는 등 사대부와 무장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양백연과 관련되어 제거되었다. 이때 우왕은 잘못된 말로 여러 재상들을 해하지 말라고까지 당부하였지만, 형벌이 매우 가혹하게 이루어져서 당시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 사서의 평가로 볼 때 우왕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행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고, 양백연 같은 인물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관련하여

우왕의 의지에 적절하게 조응한 결과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는 한 명의 무장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다. 계속되는 왜구의 침입과 명의 강압적인 자세와 계속되는 공물의 요구 등으로 무장들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인데도 연립정권에서는 우왕과 연결되는 기미만 보이던 가차없이 관련자들을 숙청해 버린 것이다. 이것이 고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연립정권이 우왕의 왕권 강화 의지를 철저하게 유린한 사건이 곧이어 발발하였다. 사건은 우왕이 政堂文學 許完과 同知密直 尹邦晏의 청을 받아들여 內宰樞인 林堅味와 都吉敷를 쫓아낸 것에서 시작되었다. 허완 등이 그날 밤 矯旨로 최영을 두세 차례 불렀는데, 최영은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휘하 병사들을 이끌고 敬福宮·이인임 등과 함께 興國寺에 모여서 甲兵을 베풀고 兩府와 百官·耆老들을 모아 의논하여, 오히려 사건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 乳養 장씨를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우왕은 유모 장씨를 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군대를 배경으로 압박을 가하는 최영 등의 요구에 굴복하여 결국 허완과 장씨 친족 등은 참형을 당하였고, 장씨도 다음해 1월에 참형당하였다.

이 사건은 우선 世族 출신인 허완[孔巖]과 윤방안[海平]이 우왕 쪽에 참여한 것으로 볼 때 우왕이 구상하고 있던 후원세력이 상당히 폭넓은 범주였다는 것을 알게 해 주면서, 그만큼 당시에 연립정권의 정치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다음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우왕은 완전히 부정되었다는 것이다. 최영은 장씨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군사를 이끌고 그것을 배경으로 우왕을 압박하였으며, 나아가 장씨의 친족들을 임의로 국문하기도 하면서 결국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켰던 것이다. 이런 최영측의 공격적인 태도에 우왕은 최영에게 "일이 급하여 실언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깊이 후회한다"고 차마 왕으로서 하기 힘든 말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우왕은 몹시 비판하여 정치에 뜻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그 해 12월 우왕은 즉위 이후 장인인 李琳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는데, 처음으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나라의 정사는 耆年과 碩德이 맡고 있기 때문에 환관인 너희들과 취하도록 즐겨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왕인 자신의 존재가 마치 허수아비와 같음을 한탄하였다. 또한 이 이후 사냥과 승마, 음주에 탐닉하는 방탕한 생활을 주로 하여 사서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한편 6년 2월에 睦仁吉이 大司憲 禹玄寶의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쫓겨났고, 한 달여 만인 3월에는 敬福宮이 이인임과 임견미 등에게 "술을 좋아하여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참소를 당해 유배당하였다. 그 뒤 그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죽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록은 매우 간략하여 자세한 전말을 알 수 없지만, 이들 역시 연립정권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 험난한 세월을 헤쳐 나온 두 인물이 너무 허망하게 조정에서 쫓겨나 죽었다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우왕을 매개로 권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들과 우왕의 왕권 강화 노력을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여 철저하게 탄압한 연립정권은 우왕 8년을 전후하여 자체적인 재정비 과정을 거친다. 무장세력의 일원이었던 임견미와 신진사료로 활약하였던 廉興邦 형제 등이 의기투합하여 연립정권 내의 핵심세력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초기에는 무장세력 특히 최영과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였고, 우왕과도 연결을 가졌지만 그것은 서로의 안전 보장책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즉, 이전의 지윤이나 양백연처럼 연립정권을 무시한다거나 지나치게 우왕과 밀착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임견미·염홍방 등은 권력을 천단하며,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이 점들은 최영의 몇 가지 정치운영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었다.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의 것인데, 최영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유명을 잘 실천하였다. 그리하여 그 스스로 군공에 대한 포상으로 지급된 토지조차도 받지 않은 경우가 많고, 나아가 군량을 회사한 경우도 보인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최영은 다른 정치가들이 경제적 부정을 자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도 많이 하였다. 우왕 5년에는 불법적으로 양민을 숨겨 사역시키고 또한 土田을 광점한 馬垆秀를 이인임은 가볍게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최영은 그를 국문하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10년경에는 도당에 나아가 여러 재상들이 토지를 침탈하지 말자는 禁約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기까지 할 정도였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정치운영에 관한 것으로 최영은 권력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물론 왕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더욱 바라지 않았지만, 신료들 중 특정인이 지나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그의 희망은 아니었다. 그런 까닭에 최영은 도당이 중심이 되는 연립정권을 출범시킨 것이고, 본인 역시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후대의 그의 명성에 누가 된 여러 무리한 일들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원칙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임견미 등이 그런 최영의 정치운영원칙을 침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최영은 門下侍中의 직책을 사퇴하는 등의 형태로 그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국면의 전환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우왕도 재위 10년을 전후하여 다시금 자신의 親政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의 나이도 20세가 되어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한 것도 한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11년 9월 명에게서 책봉을 받은 것이 우왕의 자세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연립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안정을 위하여 우왕 즉위 이후 줄곧 명에 대해서 저자세를 유지하며 공민왕의 諡號와 우왕의 承襲 등을 계속 요청하여 왔기 때문에 명에게서 책봉을 받은 것은 연립정권에게 매우 긍정적인 일이었지만, 우왕에게도 자신이 명에게 정식으로 책봉을 받은

이상 연립정권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을 것 같다.

다른 한편 우왕은 6년 이전과는 다른 성격인 외척과 측근 위주로 후원세력을 양성해 왔다는 것도 그의 친정 의지에 대한 한 배경이 될 수 있다. 후원세력의 주요 대상이 외척과 嬖幸으로 기록될 정도로 특별히 우왕과 관계가 깊은 측근 인물들로 한정된 것은 6년 이후 연립정권의 안정과 신진사류에 대한 실망 등도 이유가겠지만, 외척의 경우에는 연립정권에서 제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왕의 혼인을 막을만한 명분을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우왕은 5년의 謹妃를 봉한 것과 14년 3월 최영의 딸을 寧妃로 봉한 것은 제외하고도, 7년 12월 謹妃의 궁인 釋婢를 맞아들인 이후 모두 7妃 3翁主를 순차적으로 봉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후妃들의 집안이 우왕과의 혼인 이후 상당한 권세를 휘둘렀다는 점인데, 이것은 역으로 그만큼 우왕의 정치적 위치도 안정되어 나갔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왕의 정치적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된 위에,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던 최영도 임견미 등의 정치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자 정국의 변환은 예상할 수 있었다. 10년에 최영과 임견미가 문하시중에 번갈아 임명되는 등 조정의 국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왕과 최영, 그리고 李成桂의 연합에 의하여 임견미·염홍방일파는 우왕 14년 1월 염홍방의 家奴 李光이 直密副使 趙懈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사건이 문제가 되어 일거에 제거되었다.

이후 정치운영은 다시 연립정권이 중심이 되던지, 아니면 최소한 도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관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었을 것이다. 최영도 이전에는 그것을 추구하였었다. 그렇지만 사건 이후 권력은 최영에게 집중되어 임견미 일파의 처벌은 이성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대로 매우 가혹하게 처리되었다. 심지어 최영은 임견미·염홍방이 등용한 사대부들을 모두 쫓아내려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되자 세속적 기반을 갖는 관료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무장들도 불안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아가 최영은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명과의 관계를 추진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단행하였다. 이것은 대다수 관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 까닭에 이성계가 주도한 '위화도 회군'이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 결과 고려말 최대의 군사적 기반을 갖고 국정을 주도하였던 최영이 몰락하였던 것이다. 이후 최영에 버금가는 막강한 무력적 기반을 가졌던 이성계의 정권 장악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5. 맺음말

원종은 무인집정자들에게 무시당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원의 부마국이 되기를 자처하였다. 충렬왕이 원 세조의 사위가 된 이후 한 동안은 왕권이 회복된 듯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이었고, 곧 원에 붙은 인물들에

의하여 다시 왕권이 침해당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고려 왕실은 전례가 없는 重祚를 겪기도 하였고, '立省策動'에 시달리면서 존폐의 위기까지 몰리기도 하였다.

공민왕은 12 세에 원에 숙위하러 갔고, 조카인 충정왕과 왕위 경쟁에서 밀리는 어려움을 겪은 뒤에 22 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오랜 원에서의 생활은 공민왕이 왕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원의 간섭을 벗어나는 것만이 고려 왕실을 위한 길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오랜 원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원이 쇠망해 가는 현실을 목도할 수 있었던 공민왕은 원년에 개혁을 실시하였고, 드디어 재위 5 년에는 '反元改革'을 단행하였다. 이후 14 년과 20 년에 또다시 개혁을 시도하였던 공민왕은 재위 기간 내내 본인 중심 즉, 국왕 중심의 정치운영을 지향하였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외척을 등용하기도 하고, 무장을 등용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전혀 뜻밖의 인물인 신돈을 등용하기도 하면서 그의 개혁정치를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신진사류와 무장세력이 정치세력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상황 전개에 따라 그가 등용하였던 인물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기도 하였던 것이 공민왕의 정치운영방식이었고, 처음 그것을 몰랐던 신료들도 점차로 그의 정치운영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민왕이 갑작스러운 시해를 당하자, 이인임 등이 중심이 되어 당시의 국내외 정세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나이 어린 우왕을 즉위시켰다. 그리고 정치는 이인임세력과 무장세력이 구성한 연립정권에서 도당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갔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였던 우왕과 우왕을 매개로 한 지윤·양백연 등의 도전이 발생하였고, 이에 놀란 연립정권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무장들이 제거되었다. 그렇지만 결국 내부의 분열과 우왕의 정치적 성장으로 연립정권은 붕괴하였으며, 최영은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숙청하였다. 그 이후 정권을 독점한 최영은 여론을 무시하고 요동 정벌을 강행하였지만, 그 자신이 '위화도 회군'을 단행한 이성계에게 숙청당하였다. 공민왕 때 형성된 무장세력의 가장 큰 기둥인 최영이 제거되자, 이성계의 군사력 장악은 어렵지 않았고, 그 결과 고려는 멸망하였으며, 조선이 건국되었다.